

섬김

예슈아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우리에게 종이 된다는 것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다른 이를 섬기는 모범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소한 부분, 명예로울 것 하나 없이 더러운 부분으로 섬기신 것입니다.

요 13:14-15 –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는 그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이 거룩한 성품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허드렛일과 과제들은 많습니다. 허나 없다고 해도, 우리는 이 성품을 훈련시키고 계발하기 위해 만들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도의 목표는 예슈아의 형상을 닮는 것, “예슈아와 꼭 같이” 되는 것, **그리스도 같은 성품을 얻는 것**입니다. 더럽고 사소한 부분에서 섬기고자 하는 의지는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그 분처럼 될 수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저희 팀은 지역 사회를 섬기기 위해 아웃리치를 갑니다. 시간 상의 제약으로 저는 반나절 밖에 있지 못합니다. 프로젝트 코디네이터인 이단^{Idan}에게 가서 “가장 더러운 일이 뭐죠?”라고 묻기도 합니다. 저희가 더럽고 사소한 일로 섬기는 것은 더럽거나 사소한 일을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예슈아처럼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사역^{ministry}”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단어가 아예 없습니다. 가장 유사한 단어로 “섬김^{service}”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역이라는 단어를 섬김과 자기 만족의 배합으로 사용합니다. 우리의 태도는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섬기는 일을 우리의 교만 및 자아와 분리시키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이의 비전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이의 사역을 섬길 때까지는 여러분의 “사역”이 교만과 분리된 것인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분리에 필요한 도구입니다.

눅 16:12 –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위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오.) 사역을 “돕겠다”고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비전과 계획을 주셨습니다. 축복해 주겠습니까?”라고 말합니다. 허나 종의 마음을 보여주는 언어는 다를 것입니다. 아무 사심 없이 그저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삶 가운데 비전과 소명을 주셨습니다. 허나 비전이 성취되는 성경적 패턴은 이렇습니다. **비전-비전의 종말-비전의 재탄생**. 요셉은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 비전이 성취되기 시작되기까지 13년을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하는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성취되기까지 그는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예슈아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이 땅에 떨어져 죽는 씨앗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후에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입니다(**마 13, 막 4, 요 12**). 씨앗 하나가 죽을 때, 겨가 낱알로부터 분리됩니다. 우리의 비전이 죽을 때, 그것은 자아 애착(쪽정)과 분리됩니다. 다시 살아날 때 그것은 순결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리더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하지만 성경적 형태의 리더는 **섬김의 리더**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눅 22:26** –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이것을 달리 번역하면, “이끄는 자는 섬기는 자처럼 되어야 한다”가 됩니다. 리더는 단지 더 널리 섬기는 자입니다. 명예를 놓고 본다면, 수천 명을 가르치는 일과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섬기는 자는 높임을 받지 못합니다. 종은 모욕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주제에 대한 성경적 가치는 세상의 것과 반대됩니다. 또래 압력 peer pressure 와 여론은 여러분을 거스를 것입니다. 섬김으로 행하기 위해, 우리는 주변 사회의 가치를 거슬러야 합니다.

마 20:25-26 –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지금 섬김이라는 영적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롬 12:7). 그것은 섬김을 위한 특별한 은혜, 곧 카리스마 charisma입니다. 모두가 그 은사를 갖진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는 것은 섬김이라는 성품입니다. 모두에게 요구되는 부분이지요. **성품 Character 이 은사 charisma 보다 앞섭니다.** 열매가 은사보다 중요합니다. 섬김이라는 성품은 다른 모든 은사 및 소명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섬깁니다. 하지만 그저 그들을 인간으로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주께 하듯” 복종합니다(엡 5:22). 제 아내는 저를 최고로 헌신된 모습으로 섬겨줍니다. 허나 아내의 우선 순위에 예슈아를 섬기는 것이 우선임을 저는 압니다. 저는 두 번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엡 6:5 – 종들아…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메시아께 하듯 하라.

우리의 섬김은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직 하나의 갈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신실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마 25:21, 23; 눅 19:17).**”

이 섬김의 원칙들을 정리해 봅시다.

1. 섬김은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다.
2. 우리는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다.
3. 우리는 다른 이의 비전을 섬긴다.
4. 우리는 “제가 어떻게 도와 드릴까요?”라고 묻는다.
5. 비전-비전의 종말-비전의 재탄생
6. 모든 지도자는 섬김의 지도자다.
7. 성품이 은사보다 먼저다.

우리 모두 예슈아의 본을 따라(요 13), 스스로의 교만을 벗고(빌 2) 이 섬김의 성품을 계발합시다.

캐나다 총리

저희는 캐나다의 동역자 패트릭 다우니 Patrick Downey 에게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캐나다의 교회는 이스라엘을 사랑합니다. 총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캐나다를 주님께서 사용하사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편에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캐나다가 이스라엘에 헌신되었음을 이야기하는 스티븐 하퍼 Stephen Harper 총리의 연설을 보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http://www.youtube.com/watch?v=AUfFdhlOoQM>